

“실력, 경험, 지혜가 진정한 ‘스펙’입니다”



기획재정부 김 동 연 제2차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
세계은행(IBRD) 선임정책관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입사해 야간대학을 다니며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한 후 거시경제, 재정 등의 분야에서 주요 요직을 거친 ‘고졸 신화’의 주인공.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에 적극 대응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으며, 옳다고 믿는 정책을 소신 있게 밀어붙이는 공직자로 알려진 기획재정부 김동연 제2차관을 만났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대부분 국민들의 얼굴이 밝지만은 않은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도 나라살림은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이끌어 가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예산은 8,500여 개의 사업을 통해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더 중요하게는, 국정운영의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을 나타냅니다. 이런 측면에서 2013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 대응을 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조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보다 늘려 돈을 더 쓰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정운용 방식을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총지출 확대효과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하던 재정융자를 이차(利差)만 보전하는 민간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더 많은 재원이 시장에 풀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 등을 통해 경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여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복지형 국가를 만들자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복지예산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산 당국자로서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복지에 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복지철학 하에서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가입니다. 우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생애주기별 복지를 확충한다는 기본 방향 하에서 복지 재정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복지를 담는 그릇인 경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해야 하고 5년, 10년 후를 생각하며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확충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해 우리 재정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면밀히 따져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 확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점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특히 역점을 두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집행 과정에서 왜곡되면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현장을 알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과정에서 정책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현장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청년창업·창직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직업 수가 10,000개가 되지 않는데 반해 일본은 약 20,000개, 미국은 약 30,000개 정도인 점을 보더라도 창업·창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꿈꾸는데,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공무원 생활의 장점과 단점을 꼽으신다면?

공직자로서 가장 큰 장점은 우선 사회변화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일을 통해 자기계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쳐 헌신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기가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반면에 공직자는 경쟁의 장(場)에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칫 현재에 안주하거나, 사회 변화나 시대적 요구에 둔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무에 매몰되어 다른 분야나 현장 상황과 멀어지는 ‘확신병’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는 시대적 요구에 깨어있으면서 자기중심을 확실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잣집과 천막을 전전하며 경제적으로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으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좌절을 겪을 때 환경을 원망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과, 난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꿈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꿈을 높게 갖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위장된 축복’으로 느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꿈을 크게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도전을 피하지 말고 부딪칠 뿐 아니라, 스스로 도전 과제를 만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즐기고 그 속에서 인생의 깊이를 느껴보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상고 출신의 성공 신화로 잘 알려져 있는데, 사회구성원들이 학력보다는 능력을 우선으로 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누구에게나 이력서에 나와 있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력서에 빠져 있는 내용이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력서에 적힌 학력이나 경력 뒤에 숨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열정은 이력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학력이나 경력보다 소중한 실력, 경험, 지혜가 훨씬 중요한 ‘스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의미의 실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사회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노력으로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비롯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실질적인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업무 외적인 것 중에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나 꼭 해보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지요?

젊었을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 늘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깨어있으면 의미 있는 일을, 소신껏 하게 됩니다. 일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거나, 기획재정부 내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봉사단체인 ‘희망 프로젝트’에도 계속 참여하고 싶습니다. 또 고전 ‘완역판’도 더 많이 읽고 싶고 지금보다 자주 소극장에서 연극이나 뮤지컬도 보고 싶습니다.

• 진행 / 이진숙(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이재범(홍보팀 차장)